



회합과 야합

“자기양보 우선하는 정치권”

“교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능히 화합(和合)하며, 남의 착한 일은 칭찬하되 타인의 잘못은 숨기며, 남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으며,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에도 말하지 않으며, 조금의 은혜라도 자신에게 베푼 자가 있을 때에는 크게 값을 것을 생각하며,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항상 선심(善心)을 일으키며, 자신을 해치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해치는 자를 먼저 구하며, 속하는 자를 만나면 도리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때리는 자를 보았을 때는 비심(悲心)을 일으키며, 온갖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해야 한다.”(우바세계경)

부처님은 교단의 화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남을 존중하고 삼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치권의 행태를 바라보노라면 겉으로는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한 ‘화합’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비열한 ‘야합’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 가결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붕괴되면서 거취가 주목되던 이한동 총리가 총리직에 남는다 안남는다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끝에 결국 현직 잔류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총리의 잔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집권 후기 김대중 정부의 국정쇄신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당내 개혁파 소장 정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자민련과의 결별로 새로운 국면에 처한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공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는 《열반경》의 말씀처럼 진정한 화합은 자기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남의 자리, 남의 떡을 빼앗아야만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항상 정치 쟁쟁들이 생겨나게 되고, 소신 없는 정치인들의 무소신 정치가 우리 사회를 썩이고 있다. 입으로는 화합을 외치면서 돌아서면 야합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정치권과 정치인들이여,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세상을 수호하는 사람은 여덟 가지 도리를 가지고 세상을 수호한다. 첫째는 언행(言行)이 들어맞아 어긋나지 않음이다. 둘째는 집안 어른을 존경해 가벼이 여기지 않음이다. 셋째는 말이 부드러워 거친 데가 없음이다. 넷째는 저를 낮추고 공손해서 늘 겸손의 뜻을 지님이다. 다섯째는 늘 질박(質朴)하여 아첨이 없음이다. 여섯째는 인화(仁和)를 닦아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음이다. 일곱째는 온갖 악이 없음이다. 여덟째는 선근(善根)으로서 세상에 적응함이다.”(대보적경)

이은자 기자

적조와 그린벨트해제 ‘경고와 안일’

불자 세상보기

레이크 카슨(Rachel Carson)이 <침묵의 봄>(Silent Spring, 1962)을 통해 농약 때문에 새가 울지 않는 봄을 고발한 이래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미래의 위기는 끊임없는 경고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자연은,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향상시킨다는 미명 하에 무차별한 정복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기술의 눈신 발달은 자연을 더욱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견 인류의 진보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연정복의 결과는 인류에게 단편적인 편리를 제공한 대신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크

기의 재무를 남겨 놓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강과 바다에서는 적조현상과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적조는 경북 동해안 9개 지역에서만도 양식이 10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1억여 원의 피해를 내고 있다. 적조 현상을 통해 바다는 우리에게 환경을 환부호 하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적조는 그동안 우리가 바다를 환부로 다룬 대가이다.

대기오염과 쓰레기문제, 그리고 산림훼손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녹지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도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환경해치는 정책 속출

“인간과 자연 더불어 살기

더이상 미룰수 없다”

우리의 환경문제는 선진외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경문제를 무시하거나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동의나 국가의 미래에 기초하지 않고 ‘정권’의 안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개발만이 선행이며 개발행위를 통해 부(富)가 모아지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꿈이 환상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마구잡이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환경폐해는 국민소득 향상분을 훨씬 초과하였다. 환경훼손의 재부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감수하고 지탱해야 할 것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 슈마허(Schumacher)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나 생산의 증대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물질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물자 생산과 소비를 막아(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자연의 낭비를 막을 수 없으며 부자의 가난한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이제 우리에게 무한정 낭비할 자연



이창수

경원대 교수
도시계획학과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발의 판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환경보호는 더이상 정부나 환경단체의 몫이 아니다.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이 자리잡아야 하고, 과잉생산이 필연적인 자본주의의 무한 이윤추구도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유기농식품을 확산시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친환경적 제품사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더이상의 환경파괴는 자해행위와 다를없다. 국민의 응기 있는 선택과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살의 형태와 가치’를 친환경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발의 판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열린마당

전사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관주도서 민간주도 체계로”

현고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최근 알려진 전사법 개정안은 종단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닌 문화관광부의 시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이 시안을 마치 종단이 만든 시안인 것처럼 왜곡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현재 문공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종단이 시혜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은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있어서 종단이 가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기존 전통사찰보존법이 관 주도의 권위주의적 체계임을 유의해 사찰과 소속 불교종단이 일차적 주체가 되도록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체계가 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문화재 지정과 해제, 보존·관리·활용 등에 대한 의견결정을 가진 기구 ‘전통사찰위원회’ 구성도 요구할 방침이다. 즉, 지정과 해제는 직권과 자율 신중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존·관리·활용 시에는 전통사찰 주지 또는 소속 불교종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의 개정안 시안에 포함돼 있는 보고, 자료제출, 조사, 지도 등의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그 대상기관도 개별사찰이 아닌 소속 불교종단 또는 종단이 위임한 사찰(교구본사 등)이 되도록 할 것이다.

재정자립 기반구축도 충분히 반영하겠다. 사찰의 경내지 소유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할 것이며, 조세감면제도를 두어 기업 등이 사찰에 기부하는 것이 용이하게 하고 이를 촉진해 ‘전통사찰 보존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공로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필요시 자율적 결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고 스님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재고”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전통사찰과 그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매우 예민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통사찰들과 과충무원장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과 전통사찰관람료 징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전통사찰 관리를 사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양보 속에 전통사찰 관리에 충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하나는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 문제이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애쓰는 소유자가 그것을 공개할 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불자나 일반인들도 관람료를 내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의무’를 분담한 다음 보완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결국 불교종단과 사찰주지에 게 전통사찰보존비를 대신 걷게 하고, 그 공적인 책임을 불교종단과 승려라는 사회적 영역으로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

전통사찰 관람료 징수는 또한 표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립공원 이용객의 70% 이상이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 당하고도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국민 중 종교가 없는 50% 중에서 30%정도가 불교전환적이라는 조사가 있다. 이제 이를 조차도 절을 찾지 않게 된다면, 불교에 친화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현재 불교종단들의 표교역량을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 일이다. 전통사찰관람료 징수는 민족전통종교라는 국민정서 안에 있던 불교를 고립시켜 박물관으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윤남진

기고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즘 출간되는 책의 경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경박단소(輕薄短小)’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가벼워지고 분량은 알파벳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중함과 가벼움, 느림과 빠름, 이는 양면적인 것이어서 어느 것이 더 옳다고 말할 것은 못되지만, 깊은 사유를 동반한 철학에 기반을 둔 진지한 삶의 자세가 인간의 근원적 존재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업적 대중문화는 일회적, 순간적,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정보의 양과 속도, 범의 등에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 문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인터넷 하이퍼텍스트의 등장도 일상생활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듯 엄청난 디지털환경의 변화 속에서 의식구조의 변화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질적 가벼움으로의 변화는 경계해야 한다. 디지털환경 속에서 사유의 기피는 기억력, 상상력, 자기 표현력, 분석력 등을 퇴화시켜 결국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점을 사회학자들은 경고한 바 있다.

현대인이 깊이 있는 사유를 기피하는 이유가 사유, 그 자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일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사교의 가벼움이 세대간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하여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철학이 죽은 사회는 도덕도 죽고, 양심도 죽고, 결국은 인간이 죽은 사회다.

가벼움·빠름 선호 사유 기피하는 철학없는 사회로



이창경
신구대 교수
출판과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 술선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 구수궁로(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2개월 50만원), 유허된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표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힘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표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남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 조 의 료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